

‘대중의 사표’ 한영 스님집중조명

선운사 ‘석전영호 대종사의 생애 사상’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불교 초대 교정을 역임하며, 근현대 선지식으로 불교교육과 민족 독립 등에 앞장섰던 박한영 스님(1870~1948). 스님은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 시절, 많지도 않았던 월급에서 필묵 구입비 외에는 모두 제자의 학비에 쓰도록 내놓았고, 스님이 순례하던 때는 한 주지스님이 진수성찬을 내자 한마디 사례조차 없이 나서는 등 승려의 본분을 지키며 민중 계몽과 불교 유신운동에 헌신하는 등 이사(理事)를 겸비한 시대의 선구자였다. 그동안 업적과 사상 등에 대해 주목받지 못했던 박한영 스님에 대한 학술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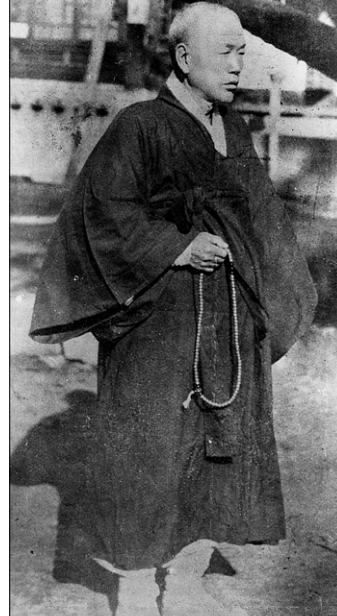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9월 20일 ‘석전영호 대종사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제2회 백파사상연구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는는 해남 스님(통도사 율원전계사의 기초강연 ‘석전영호 대종사의 강맥’을 비롯해 △‘석전영호 대종사의 불교사상과 그 유신운동’(노권용 원광대 교수), △‘석전영호 대종사의 계율사상’(운문사 승가대학 교수 호탄 스님), △‘석전영호 대종사의 항일운동’(오경후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선임연구원), △‘석전영호 대종사의 문학관’(김상일 동국대 교수), △‘석전영호 대종사의 선사상과 관련한 선종사적 배경 고찰’(김호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이 발표됐다.

구하고 교수할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해 주는 것이 됐다”며 “전강의 순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도 법맥·강맥에서 아랫 상좌가 똑똑하다고 말상좌에 앞세우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노권용 교수는 박한영 스님의 사상을 △경학정신과 계율엄정 △화엄적 세계관과 실천관 △경전적 선 사상으로 정리했다.

노 교수는 “스님의 사상기반은 서산휴정의 선교일치(禪教一致), 설파를 통해 이어진 화엄교학, 백파의 선서통달(仙書通達)과 지율엄정의 가



의 교육 및 포교의 현대화 등을 중심으로 한 불교유신운동을 전개했다.

노 교수는 “스님은 불교청년 교육에 최대 역점을 두고 후진양성에 헌신하고, 참다운 불교정신에 바탕해 현실생활 속에서 실천적으로 민중을 선도할 수 있는 포교의 현대화에 헌신했다”고 설명했다.

호탄 스님은 석전 스님 이후 희미해진 선운사 등의 호남지역 계맥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조선불교중앙총무원의 초대 교정을 지내는 등 1945년 해방을 전후해 종단 내외적으로 추앙 받던 박한영 스님은 계사(戒師)로도 많

조했다. 스님은 한성임시정부 수립 당시 13도 대표이자 불교계 대표로 국민대회취지서에 서명했고, 조선민족대동단 등에서도 활동했다. 또, 조선어사전편찬위원회 발기인과 진단학회 찬조위원으로 나서는 등 불교개혁과 호남운동에 국한하지 않고 국학진흥사업을 통한 민족수호운동도 펼쳤다.

국한론 흥운시대를 살았던 박한영 스님은 다수의 문학작품을 통해 불교적 문화관을 드러내기도 했다. 스님은 “지극한 도는 말이 없고 주석으로 드러내나 그 한계가 있다.

석전영호(박한영) 스님(왼쪽)과 통도사 율원전계사 해남 스님(오른쪽 위), 원광대 노권용 교수.



1941년 3월 13일 선학원 유교법회 후 사진(맨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석전 스님, 그 오른쪽 옆에 만공 스님).



다만 언어문자로 표현하게 되면 불교인은 ‘선계(禪閣)’라 하고 세속인들은 ‘시가(詩歌)’라 부른다”고 말했다.

김상일 교수는 “스님은 시와 선을 하나로 보는 한시(漢詩) 중심의 시적 교육과 포교를 중심으로 한 불교개혁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호법과 항일운동으로 전개됐다”고 말했다.

김호귀 연구교수는 “박한영 스님은 임제종 종지에 근거한 조사선 가풍을 이었다”며 “스님은 긍정적 안목을 바탕으로 구도자 정신에 대해 준엄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던 선지식”이라 설명했다.

법만 스님은 “박한영 스님의 수행과 학문, 업적을 조명하기 위한 사업을 점차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1면**

조동섭 기자 celana@buddhapia.com

불교·사회 소통에 ‘집단 지성’ 필요

승가대신문 20년 기념세미나서 윤남진 소장 주장

“불교계와 사회의 소통을 위해서는 인터넷 등을 활용한 ‘집단 지성’의 장(場)이 펼쳐져야 한다. 또, 불교계 내부의 소통을 위해서는 ‘소통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윤남진 NGO리서치 소장은 9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국불교 출가와 재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승가대신문 20년 기념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윤 소장은 주제발표 ‘오늘날 출가와 재가자의 바람직한 소통방안’에서 “소통에서의 문제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고 일차된 인식에 기반하지 못할 때 생겨난다”고 말했다.

윤남진 소장은 소통의 전제로 △문제의 통일성 △논증적 태도와 방법 △도반의식에 기초한 조직학습을 제시했다.

윤 소장은 “불교에서 소통의 기본문제는 ‘그것은 어떤 이유와 원인으로 행하면 해롭고 괴롭게 되며 또한 이것은 어떤 이유와 원인으로 인해 행하면 이롭고 행복하게 되는가’ 일 것”이라며 “불교적 소통은 이러한 기본문제를 전제로 편견과 권위를 떠나 집단적 수행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람직한 불교적 소통을 위해서는 (사찰 등에서) 구성원의 문제를 발견하고 현대적 언어로 정의해 효율적인 소통의 매체를 활용할 줄 아는 전문가(소통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대외적으로는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지식의 집적을 이루며 사회적 보편성을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중앙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은 축사를 통해 “학교의 재정적 문제가 해결되면 가장 먼저 승가대신문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남진 소장은 “승가대신문은 불교계 유일의 대학신문이며, 학인 스님이 직접 제작하는 신문”이라며 “공정한 언론의 역할을 잘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승가대신문 문헌회장 조경 스님은 “승가대신문은 학인 스님들의 눈과 귀를 통한 불교계 유일의 대학신문”이라며 “승가대신문이 대중매체로서 불특정다수에게 알 권리를 주는 언론의 역할을 담당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간 20주년을 맞은 승가대신문은 1990년 창간됐다. 창간 당시부터 학보지가 아닌 조계종도의 기대지로, 1990년대 종단 혼란기를 거치며 정론지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현재는 중앙승가대의 열렬한 재정을 이유로 8면 분량, 연12회 발간도 어렵게 이어가고 있다. **조동섭 기자**

“다종교사회 평화유지 대응책 마련”

조계종 불학연구소, ‘불교와 국가권력, 갈등과 상상’ 세미나

평화로운 다종교사회 유지를 위해 종교차별에 대한 불교계의 장기적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불학연구소(소장 현종)는 9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와 국가권력, 갈등과 상상’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정운기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처장은 주제발표 ‘법불교 대화의 배경과 성격’을 통해 “2008년 8월 2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8·27법불교대화는 한국불교현대사의 획기적인 사건”이라 평가했다.

정 사무처장은 8·27법불교대화의 성과를 △불교계가 권력에 대해 독립적·자주적 행보를 취하게 된 기록적 △종교차별 문제를 헌법 정신 수호, 민족문화와 역사보존을 위협이라는 사회적 의제로의 확산 △연명을 초월한 참여가 보여준 불교도의 인식변화 등으로 정리했다.

정운기 사무처장은 “이제는 종교차별 문제의 분석과 장기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비전과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이에 앞서 불교계가 철저히 공익적 가치로 무장하고 그릇된 관행을 개선해 (불교계가 개신교가 가진 기독교의 틀을 이용해) 권력에 편승하는 부작용을 막아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차차석 동방대학원대 교수는 주제발표 ‘1960~1980년대의 불교차별과 배경’에서 “종교적 불평등이 불교의 사회적 능력을 저하시켰다”고 주장했다.

조계종이 현재 주요 정책으로 추진 중인 자연공원법 개정 등을 언급한 차 교수는 “불교재산법, 전통사찰보존법, 자연공원법 등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을 무시하고 불교의 자율성과 자주권이 침해돼 왔다”며 “인재봉사 등을 통해 불교계 내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문사철 가을호

‘봉인사’ 등 18편 실려

인간학과 고전학의 대중화를 위한 인문적 계간지 <문학·사학·철학> 가을호가 출간됐다.

이번호에는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한국불교에서 봉인사의 사격’, 조인숙 고려대 박사의 ‘불설과 비불설 논쟁에 관한 소고’, 오지연 동국대 외래교수의 ‘천태 심승관법에 관한 재조명’ 등 18편의 글이 실렸다. (02)2260-3583

조동섭 기자



국태민안과 경제극복기원 및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기원



세계불교초대법왕 일봉 서경보존자 탄신 95주년 기념 및 제38회 일봉문도의 날 봉축 및 일봉문도108고승 초청 마정수기 대법회

세계불교법왕청 초대법왕 일봉 서경보존자님의 국내외 6천7백명의 제자로 구성된 전국일봉문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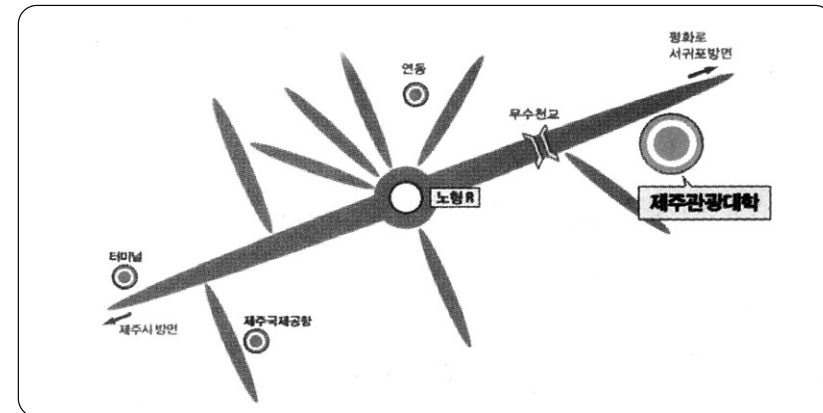
세계법왕 일봉 서경보 존자

일봉존자님 탄생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

- 일 시 : 양력 10월 10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 장 소 : 제주관광대학교 실내체육관

- | | |
|---------------|--------------|
| 10일 오전 9시 30분 | - 정기총회 |
| 오전 10시 | - 봉축대법회 |
| 정오 12시 | - 오찬 |
| 오후 1시 | - 일봉성지순례 |
| 오후 5시 | - 제주도 출발(해산) |

* 당일 참석하실 분은 행사장으로 10시까지 도착하십시오.



제주관광대학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2리 2535
☎ (064)740-8700(행사장)